韓國心理學會誌：發達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993. *Vol. 6, No. 1.* 37－50

어머니 관련 변인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 종단적 자료의 인과적 분석

김 경 연
부산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관련 변인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간의시간경과 따른 관계를 규명하고 또한 양육행동의 두 차원인 통제와 애정이 아동의 자아존중에 상호작용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지역 국민학교, 3, 5학년 아동 219 명과 그들의 어머니 219 명 총 438 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자아존중감 점수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점수를 1년 간격을 두고 2차에 걸쳐 측정하였다. 1차 측정시 어머니의 관련 변인－연령, 자아존중감 및 교육수준－에 대해서도 대상 어머니들에게 응답케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아동의 자아존중감 1차 측정치를 통제한 가운데 경로분석 및 통제와 애정 각각의 변화 방향에 따른 2×2 공변량 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1) 어머니 관련변인 중 연령과 교육수준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며 이 중 연령은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 행동에 매개되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또한 양육행동 중에서는 통제만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통제와 애정의 상호작용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으면 양육행동과 관계없이 아동의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며,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 때 통제적 양육행동을 행사할 가능 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로서 아동의 자아존중감도 높아짐을 시사한다.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 또는 판단(Coopersmith,1967 ; Gecas,1972 ; Harter,1983)이라고 정의되는 자아존중감은 주어진 상황에서 개인의 적응수준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으로 간주되는 개념이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연구들은 자아존중감과 적응과의 관련성을 입증한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불안수준이 낮으며 (Bledsoe,1964) 창의성 (정시래,1977 ; Coopersmith,1968) 및 대인태도 (Maw & Maw,1970 ; Smith & Smoll,1990)는 높은 경향을 보인다. 또한 이러한 아동은 자신의 수행결과가 어떠하든 긍정적 자기평가를 하며 (Felker& Stanwyck, 1971) 수행에 대한 원인도 긍정적으로 귀속시킨다 (오혜영, 1981 ; 장희순과 이영, 1990). 따라서 아동적응의 한 지표인 학업성취 (최재규, 1972 ; Bledsoe, 1964 ; Perkins & Shannon, 1965 ; Sears, 1970 ; Stigler, Smith & Mao, 1985)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련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가 가

족변인의 영향을 검토한 것이라는 Wylie, Miller, Cowles 와 Wilson(1979) 의 리뷰결과가 시사하듯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주된 선행요인으로 가족요인 특히 부모요인이 주목 받는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유관한 부모요인으로 부모의 양육행동, 자아존중감 및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의 지표로 간주되는 부모의 교육수준, 직업, 소득 등을 제시한다. 즉 부모의 양육행동이 애정적일수록(김명숙, 1978 ; 김경연, 1987 ; 김명자, 1978 ; 손화희와 윤종희, 1989 ; 이덕순, 1980 ; 이미정, 1988 ; 장도현, 1985 ; 정숙자, 1984 ; 주리분, 1982 ; Sears, 1970)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김경연, 1985 ; 손화희와 윤종희, 1989 ; 이미정, 1988 ; Tocco & Bridges, 1973) 그리고 부모의 교육수준, 직업 및 소득수준이 높을수록(김영희, 1980 ; 손화희와 윤종희, 1990 ; 송인섭, 1978 ; 이덕순, 1980 ; 이병림과 박춘심, 1971 ; 장희순과 이영, 1990 ; 정숙자, 1984 ; 정시래, 1977 ; 주리분, 1982)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부모요인의 영향을 검토한 많은 선행연구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몇가지 이유로 인해 연구가 반복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첫째,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부모요인들 간에 존재하는 선후 관계를 고려치 안음으로써 이들 요인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적절히 설명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관련 지어진 부모요인 중 부모의 자아존중감과 교육수준 등은 양육행동의 배경요인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는 경험적으로도 입증되고 있다. 손화희와 윤종희(1990) 및 이미정(1988)의 연구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부모는 애정적이며 긍정적 양육 경향을 보였다. 또한 부모의 교육수준, 직업 및 소득은 애정적 관용적 양육행동과 유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경연, 1985 ; 박태석, 1974 ; 안복례, 1971 ; 이숙과 박성연, 1988 ; 이희자와 정영숙, 1979 ; Gecas, 1971). 따라서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부모요인의 영향이 적절히 설명되기 위해서는 양육행동을 제외한 부모요인들의 직접적인 영향과 함께 양육행동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영향이 분석되어야 하나 이러한 시도를 한 연구는 거의 없다.

그런데 부모의 양육행동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한다면 양육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인 부모의 연령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증적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연령과 애정적 양육행동간의 상관관계가 있으며(안복례, 1971) 산모의 연령과 부모 역할 만족도 및 적절한 양육행동간의 선형적 관계가 있다(Ragozin, Basham, Crnic, Greenberg & Robinson, 1982). 이외에 10대 부모가 처벌적 공격적 행동을 보인다는 Berk (1991) 및 Hamner와 Turner(1990)의 리뷰결과 역시 양육행동이 부모의 행동에 영향을 받음을 지지하는 증거들이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적 요인은 부모의 연령, 자아존중감, 교육수준, 직업, 소득 및 양육행동 등이며 이들 요인 중 부모의 양육행동은 여타 부모요인과 종속변인인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매개하는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

1) 현대가족의 주된 기능인 자녀양육기능 (Berk, 1991)은 거의 전적으로 어머니에의해 수행되고 있으므로 아동과의 상호작용 빈도 및 강도가 아버지에 비해 높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타인들과의 누적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는 상호작용론자들의 주장을 고려할때 아동과의 주된상호작용 대상자인 어머니의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정보를 얻는 방법이라 생각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 중 어머니만을 연구대상으로 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첫번째 목적은 어머니[1]의 연령, 자아존중감, 교육수준등 어머니 관련변인을 외생변인으로 하고 양육행동의 두 차원인 애정 및 통제를 내생변인으로 하여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인과모형을 분석하는데 있다.

선행연구에서 발견되는 두번째 문제점은 부모의 양육행동 중 통제와 애정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상호작용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의문에 아직 만족할만한 답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육행동을 연구하는 다수의 학자는 부모의 통제효과가 부모가 애정정도에 따라 조정된다고 간주하며 이러한 시각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해서도 타당함이 Coopersmith(1967) 의 연구에서 입증되었다. 그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남아의 어머니들을 면접하여 애정적인 동시에 통제적인 양육특성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애정과 통제의 효과를 분리 검토하였으므로 Coopersmith의 주장은 제대로 반복 검증되지 못한 상태이며 필자가(김경연, 1987) 시도한 반복연구에서는 그의 주장이 부분적으로만 검증 되었다. 부모와 아동의 性에 따라 네개의 조합을 설정하여 분석했을때 아버지와 남아의 조합에서만 이러한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또한 통제의 영향만을 다룬 연구에서는 통제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김명자, 1978 ; 김숙경, 1986 ; 심영현, 1981 ; 장도현, 1985) 내지는 무영향(Gecas, 1971)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가 애정이라는 양육차원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확인될 필요가 있다. Coopersmith(1967)의 연구 결과가 남아만을 대상으로 얻어진 점도 반복연구의 필요성을 증대시키는 한 요건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두번째 목적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통제와 애정의 상호작용적 효과여부를 검토하는 데 있다.

끝으로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공유하는 문제점은 중요한 연구설계상의 제한점으로 인하여 연구결과의 내적 타당성이 훼손되었거나 변인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먼저 내적 타당성의 훼손은 부모관련변인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간의 오염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대부분의 연구가 부모관련변인을 아동에게 평정케하여 측정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와 같은 측정치를 분석할 때 얻어지는 정보는 부모관련변인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가 아닌 두개의 자기보고 간의 상관관계, 그것도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있는 변인 간의 상관관계가 된다. Felker 와 Stanwyck(1971)의 연구결과가 시사하듯이 주어진 대상에 대한 개인의 평가는 그의 자아존중감 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자아존중감 점수가 높은 아동은 부모관련변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응답할 것이므로 두 변인간의 관련성은 실제 이상으로 높게 나타날 수 인다. 이러한 오염은 부모관련변인을 부모로부터 직접 측정함으로써 제거될 수 있다.

다음으로 선행 연구들로 부터 부모관련변인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해 어떠한 인과적 관계도 인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관련연구 대부분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을 동일시점에서 측정하는 횡단적 설계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Wylie 등(1979)에 의하면 이러한 설계는 자극-반응(S-R) 관계가 아닌 반응-반응(R-R) 관계에대한 상관관계의 탐색일 뿐이다. 대부분의 사회적 관계와 마찬가지로 아동과 부모의 관계도 상호 영향을 미치는 양방적 관계이므로 상관적 자료만으로는 어느 것이 원인이고 어느 것이 결과인지 단정할 수 없다. 두 변인간의 인과적 방향을 확인키 위해서는 가외변인이 통제된 상태에서 독립변인에 인위적 조작이 가해지는 실험적 연구가 요구되나 현실적으로 실험적 조작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시간적 관계를 고려한 종단적 연구설계가 대안으로 고려된다.

본연구에서는 上記한 두가지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어머니 관련 변인을 어머니로부터 직접 측정하여 시간경과에 따른 변인들 간의 관계를 밝히는 종단적 설계를 채택함으로써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변인간의 인과적 설명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명료히 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답을 구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를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 어머니 관련 변인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간의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통제와 애정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하여 상호 작용적 효과를 갖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표본은 부산시 소재 S 국민학교에서 무작위 추출된 1, 3, 5 학년 남녀 아동 219명과 그 어머니 219명으로 이들은 1988년도 및 1989년도 2차에 걸쳐 조사 되었다. 자료수집 각 단계에서의 응답률은 1차 조사시 91.8%(305명 중 280명) 및 2차 조사시 87.95%(249명 중 219명)로 양호한 편이였다. 대상아동의 성비는 남아가 44.29%(97명), 여아가 55.71%(122명)였고 학년비는 1학년 35.62%(78명), 3학년 32.42%(71명), 5학년 31.96%(70명)로 학년에서는 고른 분포를 보였으나 성비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약간 많았다. 대상 어머니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은 표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어머니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N=219)

변인명	구분	빈도	(%)
연 령	34세 미만	52	23.7
	35~39세	113	51.6
	40~44세	50	22.8
	45세 이상	4	1.9
교육수준	국졸이하	20	9.1
	중학교 중퇴 및 졸업	74	33.8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	100	45.7
	전문대 중퇴 및 졸업	6	2.7
	대학교 중퇴 및 졸업	18	8.2
	대학원 중퇴 및 졸업 이상	1	0.5
가정의 월소득	20만원 이하	2	0.9
	21만원~40만원	35	16.0
	41만원~60만원	63	28.8
	61만원~80만원	47	21.5
	81만원~100만원 이상	39	17.8
	101만원 이상	32	14.6
	무응답	1	0.5

변인측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 본연구에서는 정원식(1968), Coopersmith(1967), Piers와 Harris(1964) 및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에 근거하여 Likert식 합산평정척도 제작방식으로 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여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였다. 척도구성 절차는, 먼저 이들 척도의 문항으로 부터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아동용 문항들을 추출하고 교사관련[2]7문항을 첨가하여 내용중복 문항을 제외한 87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87개 문항의 정도를 나타내는 5점의 평정범주를 선정하여 임의추출된 국민학교 1, 3, 5 학년 아동 50명에게 반응케 한 후 회수한 43부를 대상으로 아동이 이해곤란하다고 지적한 문항을 제외한 문항들에 대하여 문항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내적 일치도가 높고 (r)$.35$, p ($<.01$) 응답이 편중되지 않은[3]28 문항을 추출하여 1차 본조사 대상 280명에게 응답케 한 결과를 요인분석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둘 이상의 요인에 .45 이상의 부하량을 보이거나 어느 요인에도 .45 이상의 부하량을 보이지않은 7개 문항을 누락시킨 21문항으로 최종척도를 구성하였다. 따라서 본 척도는 21~105의 점수범위를 가지며 1차 본조사 표본에게 시행한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alpha = .894였다. 본 척도에 의한 측정은 1988년 과 1989년 2회에 걸쳐 실시되었는데 이는 결과분석 때 1차 측정치를 통제변인[4]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였다.

어머니의 애정 및 통제 – 본 연구에서는 애정 및 통제를 [애정 및 통제 각각의 일년간의 변화값]으로 조작화 하였다. 이는 애정 및 통제의 실질적 변화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검토함으로써 결과의 인과적 해석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각각의 변화값은 1989년도 측정치에서 1988년도 측정치로 뺀 값으로 구하였는데 용어의 명명적 의미와 조작적 의미의 혼돈을 막기위해 결과분석에서는 두 변인을 [애정의 변화], [통제의 변화]라 명명하였다. 변화량 산출을 위한 1, 2차 측정은 본 연구자(김경연, 1987)가 선행연구에서 제작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오기선(1965)의 어버이와 자녀관계 진단검사, Bronfenbrenner(1963)의 B.P.B,[5] 및 Schaefer, Bell 및 Bayley(1959)의 M.B.R. I[6]등을 바탕으로 하여 문항분석 및 요인분석을 거쳐 추출된 12개의 애정문항과 11개의 통제문항으로 된 Likert식 5점 척도이다.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애정차원이 α=.82, 통제차원이 α=.80으로 나타났다. 척도의 점수범위는 애정이 12~60점 통제가 11 ~ 55이며 이에 근거한 변화값의 범위는 애정이 18~25점, 통제가 23~16점이었다.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번안하여 측정하였다. Rosenberg척도는 10개의 자기수용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된, 전반적인 자아존중감

---

2) 교사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타인" (Significant others)임이 선행연구(김경연, 1987)에서 입증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참조한 척도에는 교사관련 문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7개의 문항을 포함시켰다.

3) 척도의 각 문항은 1-5점의 반응범위를 가지므로 문항평균치가 2.0~4.0을 벗어나는 문항은 그 반응 분포가 어떠하든 변별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외시켰다.

4) 아동의 자아존중감 1차 측정치는 종속변인인 '89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공유변량을 잠식할 가능성이 크므로 결과를 인과적으로 해석키 위해서는 통제할 필요가 있다.

5) Bronfenbrenner Parental Behavior Questionnair.

6)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이 척도의 Guttman재생계수에 의한 신뢰도는 .92 이고 Coopersmith 척도와의 수렴타당도는 .59 (Silber & Tippett, 1965)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내에서 검토된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alpha =.87(김경연, 1987)였다. 본 척도의 점수범위는 10~40점이다.

어머니의 연령 및 교육수준-어머니의 연령은 수집된 인구통계학적 자료에 따라 만나이 그대로 점수화 하였으며 점수범위는 30~48이었다. 교육수준은 국졸이하에서 대학원 졸업이상 까지 6개 범주에 16점까지 배점하여 측정하였다.

절 차

본 연구의 자료는 1회의 예비조사를 포함한 2회의 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아동용 자아존중감 척도를 제작키 위한 예비조사용 자료는 학교를 방문하여 수집되었는데 1학년 아동에게는 대학재학생인 연구보조원들의 대면 면접을 실시하였고 3, 5 학년은 교사의 집단하에 집단으로 응답케 하였다.

1988년 7월에 실시된 1차 본조사의 경우 1학년은 교실에서 교사가 문항 및 반응범주를 직접 읽어주고 응답케 하였으며 3, 5학년은 원하는 시간에 개별응답케 하였다. 어머니용 질문지는 아동을 통해 가정으로 전달하여 응답케 한후 회수 하였다. 약 1년뒤인 1989년 6월에 실시된 2차 본조사는 반편성 자료에 의거해 2, 4, 6학년이 된 표본아동을 추적하여 개별 응답케 하였으며 부모용 자료는 1차 본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집하였다.

분 석

수집된 자료는 SPSS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는데 먼저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중요변인의 특성을 파악키 위해서는 빈도, 백분율, 평균치 및 표준편차등의 기술통계치를 구하였다.

연구문제1의 인과모형 분석에는 단계적 중회귀분석을 경로분석을 적용하였으며 얻어진 회귀계수 및 결정계수의 유의도는 t값 및 F값으로 검증하였다.

연구문제2의 어머니의 통제 및 애정의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88아동의 자아존중감을 공변인으로 한 2(통제)×2(애정) 공변량분석을 적용하였다.

결 과

어머니 관련변인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연구문제 1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1988년에 측정한 세 개의 어머니 관련변인-연령, 자아존중감 및 교육수준-을 외생변인으로 하고 양육행도의 두 차원인 애정 및 통제의 변화값을 내생변인으로 한 인과모형을 분석하였다. 1단계에서는 '88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통제한 가운데 '89 아동의 자아존중감 점수를 세 개의 외생변인 및 두 개의 내생변인에 대해 회귀시켰고[7] 2단계 분석에서는 내생변인인 애정의 변화값 및 통제의 변화값 각각을 세 개의 외생변인에 대하여 회귀시켰다. 먼저 인과모형에 포함된 변인들 간의 무차상관계수(zero-order correlation coefficient)를 표 2에 제

7)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인 Y와 독립변인 X간의 관계를 추정할 때 Y를 X에 회귀시킨다고 말한다. 즉 종속변인을 독립변인에 대해 회귀시킨다(장상희, 홍동식, 1984).

표 2. 중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변인간의 무차 상관계수 (N=219)

	1	2	3	4	5	6	7
1. '88 아동의 자아존중감	1.000						
2. '89 아동의 자아존중감	.457****	1.000	0				
3. '88 어머니 자아존중감	.124*	.039	1.000				
4. 통제의 변화('89 − '88)	.054	.148**	−.055	1.000			
5. 애정의 변화('89 − 88)	−.093+	.024	−.239****	−.010	1.000		
6. '88 어머니의 연령	−.189**	−.188**	−.049	−.131*	−.017	1.000	
7. '88 어머니의 교육수준	.086+	.211***	.071	.001	.011	−.081	1.000
평 균	76.186	74.670	29.739	−0.583	0.106	37.083	2.683
표준편차	12.103	12.067	4.459	5.295	6.571	3.476	1.005

+p<.10 *p<.05 **p<.01 ***p<.001 ****p<.0001

표 3. 어머니 개인적 변인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경로분석 결과표 (N=219)

종속변인	독립변인	경로계수 b(β)	R^2
'89 아동의 자아존중감	'88 아동의 자아존중감	.423(.444)****	.279****
	'88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100(.041)	
	통제의 변화	.231(.101)+	
	'88 어머니의 교육수준	1.981(.165)**	
	'88 어머니의 연령	−.277(−.080)	
	애정의 변화	.079(.043)	
통제변화량	'88 어머니의 교육수준	−.022(−.004)	.022
	'88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072(−.061)	
	'88 어머니의 연령	−.208(−.137)*	
애정변화량	'88 어머니의 교육수준	.172(.026)	.059*
	'88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357(−.242)**	
	'88 어머니의 연령	−.052(−.027)	

+p<.10 *p<.05 **p<.01 ***p<.001 ****p<.0001

시하였다. 표 2에 의하면 '89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어머니측 변인은 연령, 교육수준 및 통제의 변화값 등으로 나타났다. 경로분석의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고, 유의수준이 p<.10 이상인 경로계수를 근거로 인과모형을 도식화 한 것이 그림 1이다.

표 3과 그림 1을 참조하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88 아동의 자아존중감(β=.4, p<.0001)어머니의 교유수준(β=.165, p<.01) 및 통제의 변화값(β=.101, p<.10) 등이며 이들 변인은 '89 아동의 자아존중감 변량의 27.9%를 설명하고 있다(F=13.585, p<.0001).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가장 큰 직접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전년도 아동의 자아존중감으로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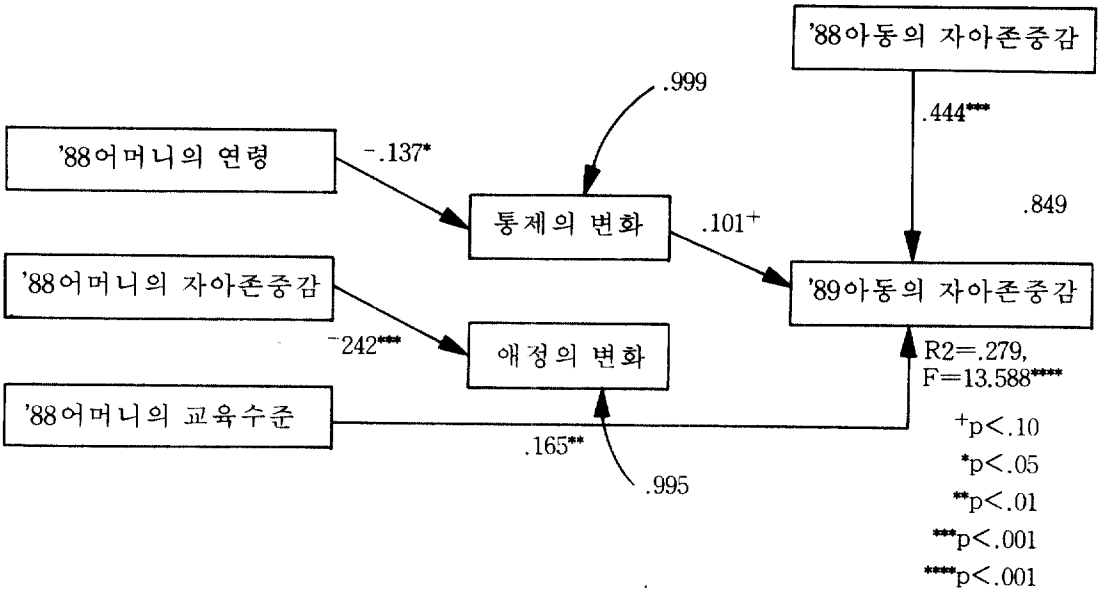

그림 1. 어머니의 관련년인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타난 것은, 이 변인이 통제되어야 할 근거를 확인에 주는 동시에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일년동안 상당히 안정적임을 시사하는 결과라 하겠다. 어머니 관련변인 중 어머니의 연령은 어머니의 통제의 변화값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β=-.137) 동시에 통제의 변화값을 매개로 하여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간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어머니의 애정의 변화값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나(β=-.242. p<.001) 애정의 변화값을 매개로 하여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어머니의 통제 및 애정의 상호작용 효과

연구문제 2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어머니의 애정 및 통제 각각을 일년간 변화방향에 따라 증가집단과 감소집단으로 구별하여 2×2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는데 '88 아동의 자아존중감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처리하였다. 공변량분석을 위한 집단구분시 애정 및 통제 중 한 차원에서라도 일년동안 변화를 보이지 않는것으로 측정된 사례 36명이 자동누락 되었으므로 분석에는 '원래의 219명에서 16.4%가 감소된 183명이 사용되었다. 먼저 공변량분석을 의한 기술통계치를 표4에 제시하였다.

표4에 의하면 어머니의 애정 및 통제가 모두 증가한 아동집단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고 (M=76.96) 애정은 증가했으나 통제는 감소한 집단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낮았다(M=72.32). 표4의 기술통계치에 근거한 공변량분석 결과는 표5에 제시되었다.

표 5에 의하면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통제만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며(F=4.119, p<.05), 이러한 통제의 영향은 애정수준에 영향을 받지 않는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처음에 동일했던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어머니의 통제적 행동의 변화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점수차이를 보임을 나타낸다(증가집단 M=76.11, 감소집단 M=72.85).

표 4. 어머니의 통제 및 애정의 변화에 따른 '89 아동 자아존중감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N=183)

	애정감소집단		애정증가집단	
	통제감소집단 (N=40)	통제증가집단 (N=49)	통제감소집단 (N=50)	통제증가집단 (N=44)
평 균	73.48	75.25	72.32	76.96
표준편차	9.75	12.00	14.09	12. 40

주) 사례수가 219명에서 183명으로 36명으로 감소한 이유는 애정 및 통제 두 차원 중 한 차원에서라도 1년 동안 변화가 없던 사례는 누락되었기 때문이다.

표 5. 어머니의 통제 및 애정의 변화에 따른 '89 아동 자아존중감 점수에 대한 공변량 분석표 (N=183)

변산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공변인('88 아동 자아존중감)	5524.505	1	5524.505	46.555**
애 정(A)	172.131	1	172.131	1.451
통 제(B)	488.795	1	488.795	4.119*
AB	255.070	1	255.070	2.149
오 차	21122.508	178	118.666	
전 체	27519.585		151.207	

*p<.05 **p<.0001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어머니 관련변인 및 양육행동의 영향을 밝히려는 연구목적에 따라 약 1년 간격을 두고 2회에 걸쳐 수집한 종단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어머니가 통제적 양육을 할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며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통제적 양육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따라서 아동의 자아존중감도 높아진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 때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과는 무관하게 통제적 양육행동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 관련변인 중 자아존중감은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아동의 자아존중감에는 어떠한 직접, 간접적 영향도 미치지 않는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중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양육행동의 영향에 부분의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저의 상반되는 결과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긍정적 상관이 있는 양육행동은 애정적 행동이며(김명숙, 1978 ; 김경연, 1987 ; 김명자, 1978 ; 송화희, 1989 ; 이덕순, 1980 ; 이미정, 1988 ; 장도현, 1985 ; 정숙자, 1984 ; 주리분, 1982 ; Sears,1970) 통계적 양육행동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김명자, 1978 ; 김숙경, 1986 ; 심영현, 1981 ; 장도현,1985) 애정이 수반될 경우에 한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Coopersmith, 1967).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통제적 양육행동만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주며 이러한 통제적 양육행동의 영향은 애정적 양육행동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 Coopersmith (1967)가 제시한 [통제적인 동시에 애정적]인 양

육조건도 부정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비애정적인 양육을 한다는 본 연구결과 역시 손화희와 윤종희(1990) 및 이미정(1988)의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의 불일치 원인은 몇 가지로 추론될 수 있다. 첫째, 가장 유망한 원인은 양육행동 측정원의 불일치인 듯 하다. 서론부의 연구의 필요성에서 제시하였듯이 양육행동을 아동으로 부터 측정할 경우 아동위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라 부모의 실질적 양육행동이 왜곡될 수 있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실제 부모의 양육행동이 어떠하든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부모가 애정적일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다]라는 결과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행동을 애정적으로 지각한다]로, 그리고 [부모가 통제적일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낮다]라는 결과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부모의 양육행동을 통제적으로 지각한다]로 해석될 수 있는것이다. 더구니 이들 결과 대부분이 두 변인을 동시에 측정한 횡단적 자료로 부터 나온것이므로 이러한 反轉적 해석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둘째, 선앵현구들이 사용한 척도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차이도 원인이 될 수 있다. [통제]는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자율성의 전반적 박탈]이라는 부정적 의미의 척도와 [표준의 설정 및 적절한 개입]이라는 긍정적 의미의 척도가 있을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후자에 속하므로 어머니의 통제점수가 높을 경우 아동은 자신에 대한 어머니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지각할 가능성이 있다. Steinberg, Elman, 및 Mount(1989)의 설명처럼 통제적 부모가 성숙한 행동을 요구할 경우 아동은 부모가 자신을 신뢰한다고 지각하므로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질 수 있는것이다. 이 외에 본 연구가 부모 중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영향을 검토한데 비해 선행연구들은 양 부모의 양육행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 이러한 결과의 불일치의 원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불일치의 원인이 무엇이든 본 연구 결과가 아동의 자아존중감 1차 측정치를 통제한 가운데 1년간의 종단적 자료를 분석하여 얻어진 것이므로 결과의 설득력은 매우 크다고 본다.

한편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김명자(1978), 손화희와 윤종희(1990)등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비통제적 양육행동을 보인다는 본 연구결과는 부모의 연령이 많을수록 긍정적 양육행동을 하며(Ragozin et al, 1982) 30대 어머니에 비해 40대 어머니가 더 민주적 양육을 한다는(안복례, 1971) 선행연구들과 같은 맥락에서 수용될 수 있는 결과라고 간주된다. 본 연구대상 어머니의 연령범위가 30~48세 였으므로 40대 이상의 어머니들은 보다 허용적, 민주적, 긍정적 양육특징을 보인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본 연구의 기여점은 선행연구들이 내포하고 있던 제한점들을 제거함으로써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부모(어머니)의 영향에 관하여 인과적 해석이 가능하며 타당성 있는 결과를 제시한 점이라 하겠다. 본 연구결과는 지금까지 의심없이 광범위하게 수용되어 온 견해 즉 부모의 애정적 양육 내지는 적어도 애정적인 동시에 통제적인 양육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높힌다는 고정관념에 의심의 여지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가 임의추출한 비교적 작은 표본으로 부터 나온 것이며, 아동과 어머니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여타요인들-아버지 요인, 아동의 특성, 생태체계적 특성등-이 적절히 통제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분석결과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김명숙(1978). **가정환경과 자아개념과의 상관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김경연(1985). 아버지의 自敬心水準, 兒童個人的 變因 및 家庭의 社會經濟的地位가 兒童의 自敬心에 미치는 影響.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 143-150.

김경연(1987). **父母의 兒童評價. 自我尊重. 養育態度와 兒童의 自我尊重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김명자(1978). 女學生의 自我槪念과 家庭環境에 관한 硏究. **대한가정학회지, 16(4),** 75-84

김숙경(1986).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행동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김영희(1986). **가정환경과 자아개념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박태석(1974). **부모의 양육방식과 아동의 도덕판단능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회청구논문.

손화희, 윤종희(1990).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및 양육태도와 아동기 자녀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11(1),** 58-71.

송인섭(1978). **가정환경의 지위변인과 작용변인이 아동의 자아개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영현(1981).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훈육방법과 자아개념간의 상관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안복례(1971).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어린이의 성격형성에 관한 조사연구. **대구교대 논문집, 7,** 83-109.

오기선(1965). **친자관계 진단검사.** 서울 : 코리아테스팅센터.

오혜영(1981). **성취결과에 대한 인과적 귀속과정과 자아개념의 상관관계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이덕순(1980). **아동의 자존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적 요인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미정(1988).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관계. **아동학회지, 9(1),** 48-61.

이병림, 박춘삼(1971). 한국아동의 가족에 대한 태도 및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한국문화원논총, 18,** 461-488.

이 숙, 박성연(198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한국아동학회지, 9(2),** 61-95.

이희자, 정영숙(1979).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관심도와 자녀의 인성과의 상관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7(2),** 83-105.

장도현(1985).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장상희, 홍동식(1984). 사회통계학. 서울 : 박영사. 장희순. 이영(1990). 시설아동의 학문적 자아개념과 귀인성향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학회지, 11(1),** 100-114

정숙자(1984). **유아의 자아개념과 가정환경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정시래(1977). **가정환경, 자아개념 및 창의성의 관계.**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정원식(1968). **가정환경진단검사.** 코리아테스팅센타.

주리분(1982). **유아의 자아개념과 가정환경변인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최재규(1972). 자아개념과 학업성취간의 상관분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Berk, L. E.(1991). *Child Development(2nd. ed.)*. Needham Heights : Allyn & Bacon.

Bledsoe, J. C.(1964). Self concept of children and their intelligence, achievement, interests, and anxiety, *Jounal of Individual Psychology, 20,* 55-58.

Bronfenbrenner, U.(1963). Bronfenbrenner Parental Behabior Quetionnaire, In M. Siegelman(Ed.), *Evalution of Bronfenbrenner's Questionnaire for Children Concerning Parental Behavior.* New York :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Freeman.

Coopersmith, S.(1968). Studies in Self-esteem, *Personality and Behavior Disorder, 2,* 218-22

Felker, D., & Stanwyck, D.(1971). General self concept and specific self-evaluation after a academic task, *Psychological Report, 29,* 60-62.

Gecas, V.(1971). Parental behavior and dimensions of adolescent self-esteem, *Sociometry, 34(4),* 466-482.

Gecas, V.(1972). Parental behavior and contextual variations in adolescent self-esteem, *Sociometry, 35(2),* 332-345.

Hamner, W. J., & Turner, P. H.(1990). *Parenting in Contemporary Society(2nd ed.).* Englewood Cliffs : Prentice Hall.

Harter, S.(1983).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self-esteem. In P. H. Musse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4th ed., Vol. 4).* New York : John Willy & Sons.

Maw, W. H., & Maw, E. W.(1970). Self-concepts of high and low curiosity boys. *Child Development, 41(1),* 123-129.

Perkins, C. W., & Shannon, D. T.(1965). Three techniques for obtaining self-perceptions in pre- adolescent boy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3),* 443-447.

Piers, E. V., & Harris, D. B.(1964). Age and other correlates of self-concept in chidre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55(2),* 91−95.

Ragozin, A. S., Basham, R. B., Crnic, K. A., Greenberg, M. T., & Robinson, N. M.(1982). Effects of maternal age on parenting role. *Developmetnal Psychology, 18 (4),* 627-634.

Rog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 Princeton Univ. Press.

Schaefer, E. S., Bell, R. Q., & Bayley, N.(1959). Development of a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95,* 83-104.

Sears, R. R.(1970). Relation of early socialization experiences to self-concept and gender role in middle childhood.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1,* 267-289.

Silber, E., & Tippett, J.(1965). Self-esteem : clinical assessment and measurement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 16,* 1017-1071.

Steinberg, L., Elman, J. D., & Mounts, N.

(1989). Authoritative parenting, psychosocial maturity, and academic success among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0(5)*, 1424-1436.

Stigler, J. W., Smith, S., & Mao, L. W. (1985). The self-perception of competence by chinese children, *Child Development, 56(5)*, 1259-1270.

Smith, R. E., & Smoll, F. L.(1990). Self-esteem and children's reactions to youth sport coaching behaviors : a field study of self-enhancement processes. *Developemtal Psychology, 26(6)*, 987-993.

Tocco, T. S., & Bridges, C. M. Jr.(1973).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concepts of mothers and their children. *Child Study Journal, 3(4)*, 161－179.

Wyile, R. C., Miller, P. J., Cowles, S. S., & Wilson, A. W.(1979). *The self concept : theory and research on selected topics, (Rev. ed. Vol. 2)*. Lincln : Univ. of Nebraska press.

韓國心理學會誌 : 發達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993. *Vol. 6, No. 1.* 37-50

Mother Related Variables, Maternal Parenting and Children's Self-Esteem : Causal Analysis of Longitudinal Data

Kyeong Yeon Kim

Department of Home Management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over-time relationship between the 3 mother related variables of age, self-esteem, and educational level, maternal affection and control and children's self-esteem. In addition, the interactional effect of maternal affection and control on children's self-esteem was studied. A total of 438 subjects-219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their mothers in Pusan area-completed the children's self-esteem scale and maternal parenting scale for two times at intervals of one year. Mother subjects also provided information on their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age, self-esteem and education level at the time of first data collection. Path analysis and 2(affection)×2(control) ANCOVA(analysis of covariance) were applied for data analysis while controlling for scores on the time 1 children's self-esteem. Results indicated that (1) mother's age and educational level contributed to children's self-esteem and the impact of the mother's age on children's self-esteem is mediated through the effects of maternal control and (2) maternal control have positive effect on children's self-esteem and does not interact with affection on children's self-esteem.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mother's education level is positively related with the children's self-esteem. Younger mothers are more likely than older ones to exercise parental control, and as a consequence, their children are more likely to have higher self-esteem.